

지 상 법 석

“八正道 생활하면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8)

永明智覺禪師垂誠(영명지각수선사수계) ②

候禪師得此田地 亦未可廢女意在
요이런득도차전지 역미가순여의재
直待無量壽身 始可行出世間事

자를 끊고
민약 고기를 버리지 않으면 일체의 자비종자를 끊는다고 하였다.

三世諸佛 同口放寬 天下無家 一音演暢
삼세제불 동구부선 천하선종 일음연창
如何後學 略不聽從 自毀正因 反行魔說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한결같이 널리 밝히시며 천하선종이 한 목소리로 펼치셨거늘 어찌하여 후학들은 귀기울여 따르지 않고 스스로 부처될 종자를 훼손하며 반대로 마구니 소리를 지껄이는가.

행복은 바깥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행복은 자기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바깥 세계에서 찾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문제는 자기 마음을 깨치라는 것이지요. 자기 마음을 깨치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고 자기 마음을 깨치지 못하면 모든 문제가 의혹 부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몸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뿌리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것이지요.

모두 자기가 뿌린 씨

깨지기 전에는 항상 회의를 느끼지요. 그런데 깨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 수는 있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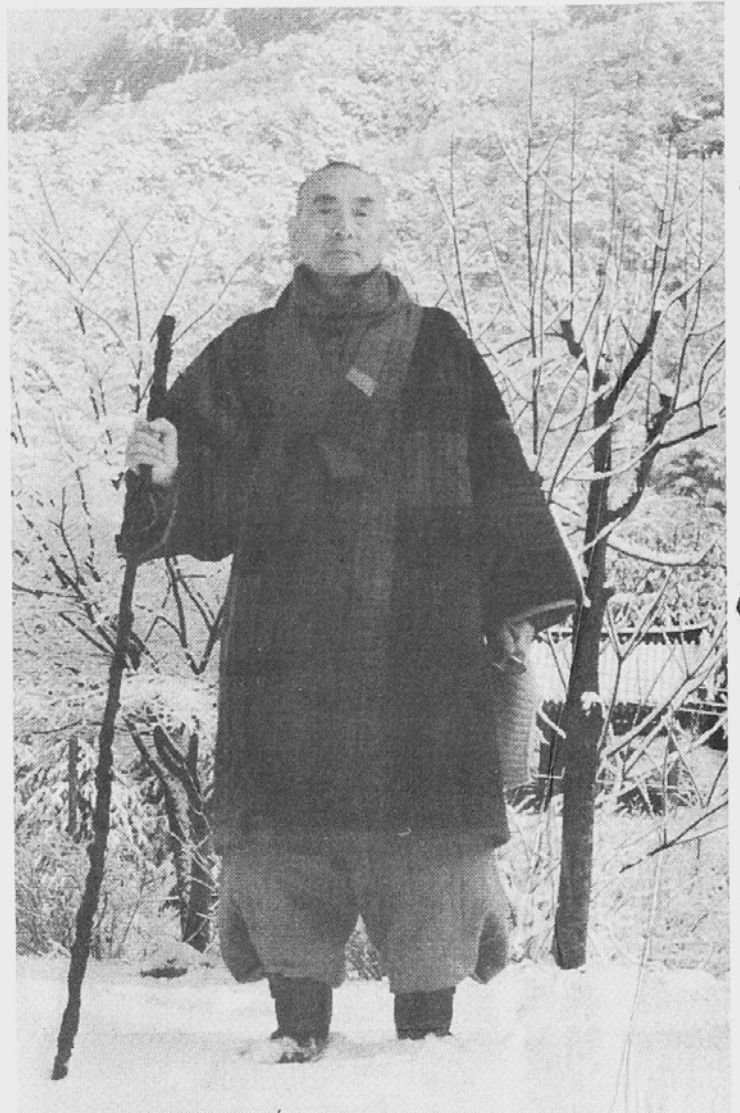
그 역할을 할 정도(八正道)를 행함으로써 없어지지요.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正定)의 팔정도는 모두 바른 행으로써 자기의 초점을 알아내는 수행이지요.

팔정도의 생활을 하면 자연히 내 마음이 밝아져 고통과 괴리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고집멸도(苦集滅道)를 말하는 사제법(四諦法)이지요.

서암스님 (前) 조계종 종정

약력

- 1912. 경북 풍기 생
· 35년 화산스님 은사로 출가
· 일본대 종교학 과 졸업
· 해인사·김유사 등에서 40년간 성만
·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9대 종정 역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씬어 먹듯이 자기 부연해 이야기 하면 자기 문제에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지요.

고(苦)도 사람의 모양처럼 짙은 고, 얼은 고가 있어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 고통 느끼는 사람을 중생이라 합니다.

그러나 팔정도를 행해서 바르게 살 때, 삶의 이치가 순용해서 삶도 바르게

다가오는 것이고 자기의 어떠한 고통도 극복할 수 있고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고(苦)도 사람의 모양처럼 짙은 고, 얼은 고가 있어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팔정도를 행해서 바르게 살 때, 삶의 이치가 순용해서 삶도 바르게

도 보지 못하는 모양없는 그것이 자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모양이 없으니 죽을 수도 없고 또한 살릴 수도 없습니다.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만들어진 물건이니가 없어지고, 이 자기도 벗어난 지니면 마멸하여 없어지지요.

그러나 유체는 죽어도 그 자라는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밭에도 이 유체는 활활 잠을 자도 그 자라는 꿈을

- 음심 버리지 않으면 청정종자 끊고
술을 버리지 않으면 지혜종자 끊고
도둑질 버리지 않으면 복덕종자 끊고
고기를 버리지 않으면 자비종자 끊는다

若不去肉 斷一切慈悲種
약불거육 단일체자비종

선업의 힘은 쉽게 소멸되고 악의 뿌리는 배어 버리기 어려울세,

불不見 古聖 道
기불견 고성 도
見一魔事 如萬箭攢心
견일마사 여만전찬심

어찌 보지 못하는가. 옛 성인이 이르되 한번 마구니의 일을 보는 것을 만개의 화살이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이하고

그대의 갈고 닭음이 넘쳐나서 이러한 경지(오계에 걸림없는 경지)에 이를지라도 또한 가히 너의 뜻에 두지말 것이니

철사와 풀철이 필요없는 더욱 간편해진 흥법등

흥법등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기존 흥법등의 단점을 더욱 간편하게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오직 불심으로 만들었습니다
흥법 정명등 영가등
신용신안 14461호
의정부동 38353호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일일이 풀방이를 하던 등 제작이 '한 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정밀한 팔각등이 1분내에 완성'되며 '기존 흥법등의 조립식을 더욱 개선하여 단 한번의 공정으로 보완 개발하여 신속하게 완성,

연등 조립등
종래 철골구조에 한장씩 속지를 바르고 건조 후 연안을 붙이던 방식을 연등조립등을 이용하여 1분 내 조립 후 연안을 붙임

형형색색의 문양과 그림
조선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종과 문헌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정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장엄함과 전통 계승에 역점.

명가등
봉축행사 및 각종 제의식의 영가 천도 등으로 걸지에 아이타를 변상도와 지방보살 만다라가 인쇄. 영가의 왕 생극락을 발원

환경을 고려한 재사용이 가능한 등
부피가 적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회의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각급의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환경 운동에 불교계에서도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 사회적으로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순수 천연 필름을 사용하여 재사용과 재처리리를 통해 자원과 환경을 고려'하여 제작.

천도 광명등
선망부모님과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은혜의 지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걸지에 부모은중경의 그림과 경문을 사경

오직 불심으로 보답하는 흥법기획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호
전화: (032) 613-4027-8 팩스: (032) 665-0965

이 세상에 자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염되고 피로에 지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활기를 얻고 힘찬 삶을 열어가실 수 있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정도원은 조용하고 아늑한 곳에 자리한 사찰입니다. 특히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공기와 몸에 좋은 생수가 있는 곳입니다.

검정고시(4월·8월 연 2회 실시)
극졸·중졸·고졸
학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72세 할머니가 배우지 못한 설움을 달고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 만에 중졸·고졸 과정을 거뒀습니다.
* 배우고 싶어도 기회와 시간이 없어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해 마련된 절호의 기회!